

## 『쿄오토 대순교를 생각하는 새로운 복음선교』

—일상으로부터 미사를 생활화하는 발걸음을 힘껏 내딛으며—

쿄오토 교구 주교 오오츠카 요시나오

### 1. 「일상으로부터 미사를 생활화 한다」 교오토 교구의 발걸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도 교오토 교구의 모든 신자분들이, 『모두가 하나 되어』 (주교님 지침어) 공동 선교 사목을 추진 해 갑시다. 우리 교오토 교구는 2004년부터 3년 에 걸쳐 『일상으로부터 미사를 생활화 한다』를 테마로, 신앙과 생활을 통합한 복음선교를 하는 공동체 만들기 활동을 계속 해 왔습니다. 작년에는 「새로운 복음선교」를 주요 핵심 언어로 해서 「새로운 노력」 「새로운 마음가짐」 「새로운 방법」 「새로운 표현」에 대해 서로 많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카톨릭 교회가 마음으로부터 기다리고 열망해온 「베드로 기베 신부와 187 순교자」에 대한 성인품이 결정되어, 올 가을 일본에서 처음으로 성인 시성식이, 나가사키에서 행해지게 됩니다. 그 중에는 「쿄오토 대순교」의 52명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주 1)

저는 이 일년을 성인품에 오르는 순교자의 신앙을 본 받아 『일상으로부터 미사를 생활화 한다』는 교오토 교구의 「새로운 복음선교」의 발걸음을 확고히 힘차게 내딛는 일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 2. 소교구 평의회 규약을 올해 중에 조정 하겠습니다

「새로운 복음선교」를 하는 교회운영과 활동을 공동 선교사목 정신으로하는 「소교구평의회 규약 만들기」는, 작년을 마지막 3년째로서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임해 왔습니다. 56개의 모든 카톨릭 교회로부터 잠정적인 규약안이 일년에 걸쳐 제출되어, 「소교구평의회 규약 조정 위원회」가 하나하나 검토 작업을 행하였습니다. 실제로 56개의 규약은 교구의 지침을 근본으로 하면서도, 각각 깊이 연구하여, 공동 선교사목의 정신을 개개의 소교구에서 어떻게 살릴 것인가, 또 새로운 부활동 제도를 도입해 활동하기 시작한 카톨릭 교회의 활동을 어떻게 표현 할 것인가등, 노력 하고 계시는 모습들을 잘 전해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내용에 있어서는 많은 규약이 교구의 지침과 약간 다른점이 있고, 명확하게 하지않으면 안되는 표현등이 있어, 조정의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년 동안 개개의 규약과, 각 교회 단체와 교구 전체와의 정합성을 위한 검토와 수정 작업을 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각 카톨릭 교회는 잠정적인 규약 그대로, 임원 선출과 부활동이 제도에 오를 수 있도록 시도를 계속 해 주십시오.

### 3. 일본 그리스도 시대의 순교

성 프란치스코 사비엘의 선교에 의해 탄생한 일본 카톨릭 교회는, 그 즉시 유명 무명의 신앙의 선조들을 탄생시켰습니다. 얼마 안 있어 찾아온 혹독한 그리스도 탄압시대를 참고 견디어 낸 일본 카톨릭 교회는 전국에서 많은 순교자를 배출 하였습니다. 그 중에, 1862 년 에 시성된 『일본 26 성인 순교자』와, 1987 년에 시성된 『성 토마스 니시와 15 순교자』(「미야고의 나자로」 포함)가 있어, 모두 합쳐 42 명의 성인이 있습니다. 올해는, 이 「미야고의 나자로」 시성 20 주년 기념의 해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 1867 년에 『일본 205 복자순교자』가 성인품에 올라 있습니다. (주 2)

일본 주교단은, 1981 년 요한 바오로 2 세가 일본을 방문 하셨을 때, 일본의 순교자에 대해 제삼 말씀 하신것을 기회로, 1603 년 이후 박해와 고문이 가장 격심하게 계속됐던 시대의 순교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1984 년 정식으로 로마 교황청의 허가를 받은 「베드로 기베와 187 순교자」의 성인품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주 3) 그리고 작년엔 베네딕도 16 세는 「베드로 기베와 187 순교자」의 성인품을 허가 하시고, 결정의 교회령(Decretum) 을 발령하셨습니다. 마침내 경사스럽게도 올 가을 일본에서 동순교자의 시성식을 거행하게 된것 입니다. 이것은 일본 카톨릭 교회에 있어서의 큰 은총이고, 복음 선교를위해 귀중한 기회로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 중에 「쿄오토 대순교」 52 명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우리 쿄오토 교구는 특별한 마음으로 이 일년을 지내지 않으면 안됩니다.

### 4. 베드로 기베와 187 순교자의 특징

이 순교자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제 1 특징은 순교지가 도우후쿠, 간또우, 간사이, 쥬우고쿠, 큐우슈우등 각지에 이르고 있는것. 제 2 특징은 신자, 수도자, 사제, 마을주민, 농민, 무사등 여러계층의 사람들 이라는것. 제 3 특징은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의 남녀 순교자, 건강한 사람과 신체장애자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교자성인품 조사 위원회편 『사랑의 증거 베드로 기베와 187 순교자』, 1995 년 시라야나기 세이이찌 추기경 서문으로부터) 일본 주교단의 성인품 조사 위원회 담당의 미조베 오사무 주교님은 현재 로마 카톨릭 교회가 성인 직위에 천거하는 기준에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우선은 신자가 생활한 시대에, 신자의 대표적 인물을 우선으로 할 것. 더구나 신자라고 하는것은, 그들이 생활한 당시의 사회에서 가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고,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일것.」 이번 복자의 대부분이 그리스도 시대에 신앙을 가지고 산 남녀노소, 어린 아이들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의 평범한 가정을 가진 사람들 입니다.

우리들은 세계에서든 예가 없는 많은 순교자를 모신 일본 카톨릭 교회를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 5. 쿄오토 대순교

그리스도 시대의 대순교로 불리는 것은, 쿄오토 대순교(1619 년 10 월 6 일), 나가사키 대순교 (1622 년 9 월 10 일), 에도 대순교(1623 년 12 월 4 일)가 있으며, 모두 화형 이었습니다.

쿄오토 대순교는, 히데다다 장군의 명령에 의해 로꾸쥬와 시찌쥬 사이의 가모가와 동쪽(현재의 다이부쯔 정면 부근) 에서, 한무리의 신자 52 명 전원이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그중 유아를

포함한 12 명이 어린 아이들이었고, 젊은 어머니들의 봉헌이 큰 특징이었습니다. 1987년 다나카 주교님이 이 교오토의 『신의 종들』 성인품 운동을 시작하신 이래, 교오토 교구 신자들의 열심한 기도가 지금 이루어 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복음선교」에 도전하는 현대의 우리들이 그들의 생애와 순교를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면, 참 신앙을 가지고 현대를 살아가려고 하는 신자와 그 가족들에게 큰 자극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성인이라고 하면 사제와 수도자, 성직자가 두더러진만큼, 교오토 대순교는 신자의 신앙을 크게 북돋워 줍니다.

## 6. 죠안 하시모토 다효에와 부인 테끌라와 다섯아이

죠안 하시모토 다효에와 그 부인 테끌라는, 신자로서의 경력과, 아이들을 하느님께 꽃다발로 봉헌한 것으로써 제일 먼저 소개 되어집니다. 다효에는 교오토에서 가장 오래된 신자인아버지를 두었으며, 어릴때부터 신앙심이 깊었습니다. 테끌라도 교오토 출신이며, 어릴때부터 신자로, 신앙에 있어서는 남편과 좋은 협조자이기도 하였습니다. 순교때, 아이들과함께 생명을 봉헌하는 그 모습은, 순교하는 일본 카톨릭 교회의 증표와도 같았습니다.(유우기 료오꼬 저 『교오토 대순교 1619년 10월 6일』, 1987년으로부터)

우리들에게는, 신앙을 받아들인것 만이아닌, 신앙을 『일상으로부터 미사를 생활화 한다』는 모습으로 증거할 사명이 있습니다. 생활에 쫓기는 현대인에게, 하느님의 사랑만이 생명의 버팀이 되고 『일상』을 살아가는 용기와 힘을 얻는 빛이라는것을 증거하는 사명을 부여 받은것은, 우리들 그리스도 신자입니다. 물론 우리들도 생활에 쫓기는 현대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선교적 생활에는, 당연히 큰 희생과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2004년 주교님 연두서간 『일상으로부터 미사를 생활화 한다』로부터) 그 때문에 「순교자의 마음은, 그리스도에 충실하려고 하는 구도하는 자의 초심이라고 생각 합니다.」(앞의글, 다나카겐이찌 주교님의 「머리말」로부터)

## 7. 현대의 순교

순교는 「증거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순교자가 증거하는 것은 자신의 「강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 사랑」의 위대함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느님의 사랑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현대에는, 어느 종교를 믿어도 일본에서 박해 받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생생하게」 생활화 하는것은 어렵습니다. 「베드로기베와 187 순교자」의 신앙의 고통이, 시대를 초월해 우리들의 마음에 전해져 왔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미적지근한 신앙을 가진 우리들 신자들의 마음을 크게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시대의 순교는 먼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들 자신은 세례를 받은 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통때는 너무나도 자신의 일만 생각하고 있고, 어느만큼 주위 사람들의 구원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자신의 신앙과 구원조차 잃어 버리려고 하고 있지않습니까? 하물며 자신의 신앙을 증거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느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동시에 그리스도 신자로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할 사명이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인생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증거하는 방법은 천차만별입니다만,

공통점은 그리스도께서 명령 하신대로, 하느님의 사랑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 8. 베드로 기베 신부와 사제 소명

오이타겐 쿠니사끼 반도의 기념 공원에 있는 베드로 기베 신부의 동상은, 앞을 응시하고 가슴을 펴고, 동상을 보는자들의 시선을 자신의 시선으로 끌어 들입니다. 로마에 가서 사제에 서품되어 귀국하니 박해의 시대. 최후에는 고문을 받아 순교하는 파란만장한 생애를 보낸 베드로 기베 신부의 눈에는, 용감하게 신부를 선교에 향하게 한 쉽게 굴하지 않는 정신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신자의 시대라고 해도, 카톨릭 교회에는 미사 성제와 여러 성사를 집행하고, 카톨릭 교회에 모든 생애를 받쳐 봉사하는 사제가 꼭 필요 합니다. 이번 188 명의 순교자 중에는 4 명의 사제가 있습니다.(주 4) 이들 사제들은 모두 파란만장한 생애를 보내고 장엄한 순교를 하였습니다. 이들 사제들의 순교는, 항상 선교 사목에 매진하며 고생하면서도 인내하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 가려고 하는, 현대의 사제들에게, 큰 격려와 위로가 됩니다. 일본은 근래에 들어 드물게 사제 소명이 적은 상황 입니다만, 이 4 인의 순교 사제의 성인품 운동은, 일본 카톨릭 교회의 사제 소명을 위하여 우리들이 반드시 이루어야 할 임무를 생각하게 해 줍니다. 공동 선교 사목을 추진하는 교오토 교구의 우리 신자와 사제들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카톨릭 교회에 아낌없이 봉헌하는 사제를 우리들 자신 속에서 선택해서 보내 주시도록, 하느님 아버지께 성심 성의껏 희생어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 9. 순교자가 완수한 예언자의 역할

현대 일본 카톨릭 교회는 제 2 바티칸 공의회는 정신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일본 사회에 침투 시키려고 노력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시대의 많은 선교사가 일본인과 일본 문화를 평가하고, 일본이라고 하는 토양에 복음을 토착화 하기위해 온갖 시도를 하였습니다. 어느시대 어느나라에나 비 복음적인 요소가 있는 한, 진리이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멈출수는 없습니다. 작년 카톨릭 정의와 평화 협의회는 교오토 대회에서의 「이 대로 좋습니까?」라고 하는 호소에서도, 오늘날의 세계와 일본을 뒤덮는 모든 문제의 근저에 평화에의 위협이 있다는 것을 통감하고, 「이 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겠습니까?」라고, 그리스도 신자의 예언자로서의 책임을 환기 시키고 있습니다. 폐회 때 아이들과함께 드린 미사에서는, 어른들이 현대 사회에 있어서 신앙을 성실하게 생활화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신자가 당연히 해야 할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완수하는 결의를 아이들 앞에서 행하고, 아이들이 이어받을 미래를 위해서 지금 어른들이 당연히 해야 할 것을 실행한다는 약속을 하느님 앞에서 하였습니다.

『일상으로부터 미사를 생활화 한다』 라고 하는 목표의 달성은, 인간의 존엄함이 유린 당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대항해 싸워 간다고 하는 그리스도 신자의 근본 결단이 생활 전체에 어느만큼 스며들어 있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2004 년 주교님 연두서간) 「베드로 기베와 187 순교자」의 죽음은, 「새로운 복음선교」로 향하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자신의 근본 결단과 투쟁에 참여 할 용기를 줍니다.

## 10. 다카야마 우곤의 성인품 운동을 합시다

신자의 시대를 반영하는 것에는, 카톨릭 교회 안에서 특별한 활동을 한 사람들을 천거 할 필요도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 시대, 세상물정에 어두운 외국으로부터 온 선교사들을 보좌 해,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준 사람들의 일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쥬스트 다까야마 우곤』 입니다. 교토토 교구는, 다까야마 우곤이 유소년기를 보낸 나라, 야마도 하이바라에서 매년 「우곤 어린이 축제」 (5월 5일 어린이 날)를 그 지방에 계신 분들과 공동으로 주최하고, 표창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까야마 우곤과 관계가 있는 나고야, 오오사까 교구가 함께 우곤의 성인품 운동에 힘을 기울입니다.

## 11. 평화의 모후 마리아께 기도하다

올해도 교토토 교구의 복음 선교의 발걸음을 성모 마리아의 중개로, 아버지이신 하느님께 봉헌 합니다. 그리고 평화의 모후 마리아를 통해, 「세계평화」를 위해 계속 기도 합니다. 「새로운 복음선교」의 「새로운 표현」으로서 그리스도 신자가 평화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것은 의무 입니다. 이것은 종교와 문화를 뛰어넘어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공통의 의무 입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참되고 항구적인 평화를 위하여,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고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복음 선교자가 되도록 기도 합니다.

2007년 1월 1일 하느님의 모후 성모 마리아 대축일

(주 1)

「교토토 대순교」의 명칭에 대하여

현재, 교토토 가모가와 다이부츠 정면의 순교지에는 「겐나 그리스도 순교의 땅」 비석이 세워져 있다. 확실히 1619년 10월 6일 교토토에서 행해진 대순교는 겐나 한해동안 일어난 사건이지만, 「겐나 대순교」라고 하는 말은, 일본 그리스도교 역사상 종래 1622년 9월 10일 나가사끼 니시사까에서의 대순교를 가리키는 말로써 정착 해 있기때문에, 그것과의 혼동을 피하는 의미에서, 「교토토 대순교」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다.

일본의 3대 순교로 불리워 지는 다른 하나는 「에도 대순교」가 있으며, 「토오쿄 대순교」가 아닌 당시의 지명 「에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당연히 「미야고 대순교」 혹은 「쿄 대순교」로 해야 한다고 생각 되어지지만, 「교토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모순은 없고, 또한 지금까지의 카톨릭 교회내의 성인품 운동에서도 이미 정착한 말로써 「교토토 대순교」라고 하는 말을 이번에 정식으로 채용했다.

(주 2)

「복자」라고 하는 것은, 성인의 전 단계. 일본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로서, 현재 성인품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시대에는 쥬스트 다까야마 우곤, 현대에는 사레지오 수도회의 치말티신부, 나가사끼 교구의 나까무라 쯔오하찌신부 (브라질에서 서거) 예수회의 베드로 알빠신부(로마서 서거)등.

(주 3)

「순교자 성인품 조사 특별 위원회」의 「역사 조사 위원회」가 소집 되어, 순교자의 자료 수집, 복자의 선정이 행하여 졌다. 법제 위원회가 결성되고, 그 위에 일본에서의 조사 최후 단계에서

「증인신문」이 행해져, 순교자에 대한 지명도가 어느 정도인가?, 존경 받고 있는가?, 복자가 되는것에 장애가 되는것은 없는가? 등이 듣기조사라고하는 형태로 행하여졌다. 교오토에서는 다섯명의 신자가 증언 하였다. 수집된 증언과 막대한 순교 자료는 엄격하게 봉인되어, 로마 교황청의 「시성 시복 성부?」에 보내져, 심의가 시작 되었다.

(주 4)

쥬리안 나까우라 신부 [나가사끼], 디에고 유우기 료오세쥬 신부 [오오사까], 토마스 긴쯔바 지효에 [나가사끼], 베드로 기베 가스이 신부[에도]. [ ]는 순교지.